

광주 양과동·나주 혁신도시에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선다

폐기물→에너지 전환 녹색성장 선도

전국 10곳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도

광주시와 나주혁신도시에 2013년 까지 생활폐기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시설인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이 들어선다.

또 2010년부터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활용해 에너지 자립을 꾀하는 '저탄소 녹색마을'이 전국 10개 시·군에 조성된다. '저탄소 녹색마을'에는 순천 등 전남 3개 지자체가 참가 의사를 밝혔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폐기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활용한 저탄소 녹색 성장 선도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3년까지 광주시 남구 양과동과 나주시 금천·산포면 일원에 각각 58만4천㎡·7만760㎡ 규모로 사업비 1천484억원·225억원을 들여 환경 에너지 종합타운을 조성한다.

광주에 조성될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에는 가연성 폐기물 고형연료화시설(RDF·560t/일)과 전용보일러

(300t/일), 음식물 처리과정의 폐수에서 발생하는 메탄 등 바이오가스를 에너지화하는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300t/일)이, 나주에는 가연성 폐기물 고형연료화시설(150t/일)이 들어선다.

환경부는 광주와 나주에서 발생하는 일 평균 1천478·64t(2006년 기준)의 생활 폐기물 일부를 에너지로 전환, 시설 자체에서 소비하고 잉여 에너지를 주변지역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들 두 곳의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에서 가연성 폐기물을 고형 연료화하거나 전용보일러 가동,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등을 통해 일 평균 1천310t의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시설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3천6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전국 10개 시·군에 에너지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을 조성키로 했다. 이 사업에는 여수와 순천, 나주 등 전남지역 3개 시를 비롯 전국 11곳의 지자체가 참가 의사를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신청 지자체를 상대로 타당성 조사를 벌여 2010~2011년까지 10개 시·군에 저탄소 녹색마을을 조성, 시범 운영한 뒤 2020년까지 600여 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과 바이오 매스를 에너지화함으로써 에너지 자립형 마을을 추구하는 저탄소 녹색마을은 지역 특색에 맞게 도시·농어촌·농복합·산촌형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조성된다. 이들 마을에선 에너지 자급자족과 함께 친환경 생태교육, 에너지 절약 주민 생활화 운동 등을 병행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농어촌 및 소도시의 경우 에너지 자원의 잠재력은 크지만 실제 에너지 활용은 극히 저조하다"며 "저탄소 녹색마을은 지역내 자용자원 활용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당 후 고향으로 돌아온 김 할머니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외롭게 살아야 했다. 국권을 강탈

한편 김 할머니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의 무자비한 폭력 진압 과정에 항의하던 중 부상을 입어 5·18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김 할머니는 나주초교 6년 때인 1944년 5월 "중학교에 진학시켜주겠다"는 일본인 교사의 말에 속아 일본으로 끌려간 뒤 나고야의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김 할머니는 나주초교 6년 때인 1944년 5월 "중학교에 진학시켜주겠다"는 일본인 교사의 말에 속아 일본으로 끌려간 뒤 나고야의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연꽃 보고 떡에도 치고

26일 광주시 광산구 수원지구에서 열린 '제1회 수완동 왕버들 연꽃축제'에 참가한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연 인절미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수완청년회가 주관한 이날 축제에는 다채로운 주민 참여 행사가 곁들여졌다.

/위직기자 jrwi@kwangju.co.kr

명예회복 못하고...

'근로정신대' 김혜옥 할머니 끝내 숨져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근로정신대 출신 할머니가 꿈에도 그리던 '명예회복'을 하지 못하고 숨졌다.

26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출신 김혜옥 할머니가 전날 낮 12시30분께 노환



당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노동력까지 착취당했지만 '근로정신대'라는 꼬리표를 바라보는 시간이 곱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할머니가 일본을 상대로 본격적인 '명예회복'에 나선 것은 지난 1999년 3월. 당시 나고야 시민단체 등 양심적인 일본인들의 도움을 받아 동료 피해자들과 유족 등 8명의 이름으로 일본과 미쓰비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하지만 김 할머니는 지난해 11월 11일 일본 최고재판소가 최종 '기각' 판결을 내리자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다. 이후 김 할머니는 7개월 가량 병원에서 투병생활을 해왔으나 결국 평생의 한을 풀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발인은 27일이며, 장지는 국립 5·18 민주묘지다.

한편 김 할머니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의 무자비한 폭력 진압 과정에 항의하던 중 부상을 입어 5·18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초등 6학년때 日 끌려가

미쓰비시에서 강제노역

손배소 기각 병세 악화

5·18때 부상당한 유공자

으로 별세했다. 향년 78세.

5·18 유공자인 김 할머니는 지난 1999년부터 일본과 미쓰비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벌여왔으나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고 한평생 생을 마쳤다.

김 할머니는 나주초교 6년 때인 1944년 5월 "중학교에 진학시켜주겠다"는 일본인 교사의 말에 속아 일본으로 끌려간 뒤 나고야의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온 김 할머니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외롭게 살아야 했다. 국권을 강탈

전남 영어교사 75% 영어로 수업

도교육청 조사

전남지역 초·중·고교 영어교사 4명 중 3명이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영어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TEE·Teacher English in English)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체 1천503명 가운데 TEE 교사 수는 1천120명으로 74.5%였다.

초등학교는 299명의 교사 중 TEE 교사는 207명(69.2%), 중학교는 571명 중 446명(78.1%), 고등학교는 633명 가운데 467명(73.8%)이었다.

이는 2007년 영어 수업진행 교사 비율 71.1%보다 3.4% 포인트 높아

진 것이다.

영어로 수업하지 않지만 수업이 가능한 교사는 이보다 더 높은 전체 1천503명 중 1천277명(85%)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가 233명(77.9%), 중학교는 499명(87.4%), 고등학교 545명(86.1%)이나 됐다.

도 교육청은 영어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내외 영어 심화연수 강화와 확대, 우수 교원 표창, 인사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추진 중이다.

또 원어민과 영어교사가 1개월 이상 몰입해 진행하는 합숙 연수도 500명 이상이 참가하도록 하는 등 영어 연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진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37분 해질 19시 40분 달돋이 11시 16분 달질 22시 36분

내륙 한때 소나기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았다. 내륙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었다.

지역	구름	기온
광주	구름 많음	22/30℃
목포	구름 많음	21/28℃
여수	구름 많음	21/28℃
완도	구름 많음	21/28℃
구례	구름 많음	20/30℃
애남	구름 많음	21/29℃
장흥	구름 많음	21/29℃
고흥	구름 많음	20/27℃
순천	구름 많음	21/29℃
영광	구름 많음	20/29℃
진도	구름 많음	22/29℃
전주	구름 많음	21/29℃
남원	구름 많음	20/29℃
목성	구름 많음	20/26℃

바다	종형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0~1.5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5~2.5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5~2.5m	☀	🍷	☹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8(화)	29(수)	30(목)	31(금)	8/1(토)	2(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22/27	21/27	21/30	21/30	21/30	22/29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대학원: 065-1114 / 대학: 065-1115

광주교대 부설 초등 교장 선발

서류 전형→면접 심사로 전환

광주교육대가 부설 초등학교의 교장단 선발 방식을 전국 교육대 중 최초로 서류 전형에서 면접 심사로 바꿔 관심을 끌고 있다.

26일 광주교육대에 따르면 최근 목포부설 초교 교장과 교감 선발에서 학교경영계획서 발표와 집의, 응답 등 까다로운 면접 심사와 연구실적 평가를 거쳐 후보로 추천된 6명 가운데 2명을 임용했다.

그동안 광주와 목포부설초교 교장 등은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3배수 추천된 교원 가운데 서류 검토만을 거쳐 임용했다. 개방형 공모제 형태의 선발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국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한편 목포부설초교 교장에는 김명석(무안 청계남초교)씨가, 교감에는 김경수(구례 간문초교)씨가 임용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학원 수강료 상한제

"헌법 배치" 판결

교육당국이 학원 수강료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등 행정규제를 할 수 있게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조항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관급 부장판사)는 2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L영어학원이 서울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교육 현실상 사교육은 공교육이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공교육 못 지않은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는데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의 기본 원리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제부터 **맛있는** **생면**

맛있는 생면, 신선한 재료, 맛있는 요리

숙불갈비 1접시 + 생면 크릇 = 4,500 원

1644-1661